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 학 래

<사회복지학·부교수>

hlcho@kbtus.ac.kr

I.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어 지난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만 6세 이상의 76.3%(3,482만 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99.8%로 가장 높고, 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률이 99.7%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생이 생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인간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65, 68.

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서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는 이유는 주로 게임이나 오락 및 음란물 위주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과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 중에서도 과도한 관심과 이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9세-만19세) 중 인터넷 중독 고위험사용자군이 2.3%,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이 12.1%로 총 14.4% 정도가 인터넷 과다이용자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만16세-만19세)의 경우에는 2.9%가 고위험사용자군이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13.1%로 나타나 총 16.0% 정도가 인터넷 과다이용자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과다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인터넷 과다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일상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인터넷 자살사이트 이용을 통한 청소년의 자살충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³⁾ 이런 관심으로 인해 최근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는 청소년과 가족, 또래집단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 등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59.

3) 손병덕, “일반청소년, 학습장에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에 즉,”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5): 222.

따라서 이러한 관련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 개인, 가족, 친구, 학교 및 인터넷 환경 등 각 차원에서 변인을 규명하거나⁴⁾ 각 차원에서 몇 가지의 변인만을 선정하여 규명하려는⁵⁾ 시도가 많았고,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⁶⁾ 이와 함께 그동안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인터넷 중독문제를 다룬 연구도 드물었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을 이해하고 인터넷 중독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체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향의 영향 요인의 차이를 파악

4) 이승대, 김선미,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상태에 따른 지도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47권 1호 (2008); 홍세희 외 2인,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1호 (2007).
 5)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2001); 한미영, 이형실,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권 4호 (2006).
 6) 김진희, 김경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1호 (2004).

하여 실천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인터넷 중독수준 집단별에 따라 생태체계적인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다.

II.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 요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특성 요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로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는 현실에서의 외로움과 절망감 대신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가상적인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성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⁷⁾

7) 이수진 외 2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는 위험요소 중의 하나로 개인의 충동성을 들 수 있다. 충동성이란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충동성과 인터넷 중독성향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충동성을 지닌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느끼는 재미와 활동에 몰입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할 활동보다는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⁸⁾ 따라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실생활에서 만족감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중 하나는 우울인데, 우울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울은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인 동시에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까지 폭넓은 부분에서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이다.⁹⁾ 일반적으로 우울은 청소년기에 빈발하는 증세의 하나로, 청소년기의 우울은 연속적인 장애로서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신체증상과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보이며, 다양한 문제행동과도 관련을 맺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¹⁰⁾ 청소년은 현

변화와 상호 관련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2005): 1193.

8) 이수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5권 제2호 (2008): 187.

9) Joiner, T. E., Jr., & Metalsky, G. I.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2 (1993): 117.

10) Brooks-Gunn, J. & Peterson, A. “Studying the Emerg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실에서의 우울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보상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강화되어 인터넷 중독성향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우울을 지적하고 있을¹¹⁾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울 문제가 심각할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¹²⁾

2. 가족환경 요인

가족은 가족성원들의 생활의 장이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규범의 내면화와 적합한 행위유형을 습득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가족관련 요인은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다. 즉,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 가족성원간의 갈등경험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대화와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 건강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청소년은 가족생활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정 내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과정을 사회화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 20 (1991): 116.

- 11) 오원옥,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1호 (2007): 86.
- 12) 임진숙 외 2인,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8권 제2호 (2005): 80.

한다. 특히 홍세희 등¹³⁾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적절한 규율을 제공하여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를 의미하는 보다 직접적인 지도방식을 말한다. 즉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간의 관계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부모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부모간의 잦은 갈등은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⁵⁾

13) 홍세희 외 2인, “인터넷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140.

14) 조학래,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4권 (2006): 55.

15) Davies, P. T., & Cummings, E. M.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6, no. 3 (1994): 406.

3. 사회환경 요인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지속적이다. 청소년기는 또래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시기이며, 또래친구들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된다.¹⁶⁾ 또한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교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이런 학교생활에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함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사들의 적절한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의 일차적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자세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¹⁷⁾ 선행연구에서 보면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친구와의 관계망이 좋을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4. 통제 요인

통제 변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

16) 조학래, “여자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제34집 (2004 가을): 306.

17) 조성남 외 2인,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서울: 집문당, 2002), 156.

18) 김교정, 서상현,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변인의 경로 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권 1호 (2006): 169.

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학년별을 설정하였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당 평균 인터넷 접속횟수와 1회당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 중독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¹⁹⁾도 있어서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중독은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독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주당 평균 인터넷 접속횟수와 1회당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과 같은 인터넷 환경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²⁰⁾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이며, 5개구에서 남녀 각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비확률적 할당표집방법을 사용

19) 류은정 외 3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권 1호 (2004): 106.

20) 조춘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13권 제5-2호 (2006): 15.

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의 응답요령과 주의할 점을 교육받은 면접원이 표본학교의 담임교사와 담당과목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응답하게 한 후에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600명의 고등학생들이 본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부 항목에 누락이 있거나 같은 번호에 일률적으로 표시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각각 275명씩을 할당하여 모두 550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강만철과 오익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²¹⁾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집착, 강박적 사용, 재발, 내성 및 의존성, 그리고 생활장애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모두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을 부여하여 점수범위는 0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신뢰도 계수가 .85로 나타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척도의 문항들이 중독 구성 요인들을 비교적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90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① 개인특성 변인

21) 강만철, 오익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I),” 『교육심리연구』, 15권 4호 (2001): 20-1.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오승환²²⁾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는 .8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은 전경구 등²³⁾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전체 20개의 문항 중에서 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리커트식 4점 척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는 .863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Buss와 Perry²⁴⁾의 공격성 척도 중에서 충동성과 관련된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리커트식 4점 척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771로 나타났다.

② 가족환경 변인

가족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간의 갈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enes와 Olsen이 개발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를 김윤희²⁵⁾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20개의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리커드

22) 오승환, “저소득 결혼가정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37.

23) 전경구 외 2인,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1호 (2001): 76.

24) Buss, A. H. & Perry, M.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1992): 452-9.

25)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157.

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765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자녀의 활동과 적응, 그들이 가는 곳을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행동으로 정소희²⁶⁾가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외출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부모가 아는 것과 관련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는 .81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은 이정은²⁷⁾과 조미형²⁷⁾이 사용한 가족 내에서의 부모간의 욕설과 폭력 목격 및 자녀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모간의 모습 등을 중심으로 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는 .829로 나타났다.

③ 사회환경 변인

사회환경 변인으로는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을 선정하였다. 먼저 친구관계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개념을 말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장덕희²⁸⁾가 사용한 7개 문항 중에서 5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26) 정소희,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권 (2007 겨울): 17.

27) 이정은, 조미형,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권 (2007): 87.

28)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157.

.875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지의 개념을 말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희수²⁹⁾가 사용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수준이 좋음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90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박현선³⁰⁾이 사용한 학교적응 유연성 척도 중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는 .707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성별과 학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와 1회 평균 인터넷 접속시간 등을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로 여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년은 1학년은 '1'로 2학년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는 '거의하지 않음'(1)에서부터 '거의 매일'(5)로 부여하였고, 1회당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분단위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와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SPSS(Ver.12.0)를 이용하여 척도에 대해서는 내적 신뢰도(Chronbach α)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주요 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

29) 김희수,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41.

30)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156.

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별에 따라 고려한 변수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들인 고등학생들이 지닌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0%이며, 학년별로도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41.8%)가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도 40.2%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31.6%, 중위권이 27.6%, 하위권이 40.7%로 나타나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학업성적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자 유형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90.5%(498명)였고, 9.5%는 가족구조에서 부모의 결손상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잘 사는 편이다가 9.1%, 중간이다가 67.3%, 어려운 편이다가 23.6%로 각각 나타나,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자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39.0%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5-6일 정도는 9.6%, 3-4일 정도와 1-2일 정도는 각각 20.9%이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거의 3시간에 가까운 평균 155분 정

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5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75	50.0
	여자	275	50.0
학년	1학년	275	50.0
	2학년	275	50.0
종교	기독교	230	41.8
	불교	61	11.1
	천주교	29	5.3
	기타	9	1.6
	없음	221	40.2
학업성적	상위권	174	31.6
	중위권	152	27.6
	하위권	224	40.7
경제적 수준	잘 사는 편	50	9.1
	중간 정도	370	67.3
	어려운 편	130	23.6
부모 유무	아버지+어머니	498	90.5
	아버지만 계심	17	3.1
	어머니만 계심	26	4.7
	모두 안 계심	9	1.6
인터넷 사용정도	거의 매일	209	38.0
	5-6일	53	9.6
	3-4일	115	20.9
	1-2일	115	20.9
	거의 하지 않음	58	10.5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평균(표준편차)	155.03(111.89)	

다음으로 고려한 변수들의 주요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충동성은 평균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충동성이 우울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지도감독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변인에서 친구관계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 흥미는 평균과 거의 동일하였다. 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N=55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13.05	3.01	5	20
	우울	10.58	3.27	5	20
	충동성	11.90	3.05	5	20
가정환경 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11.42	2.44	4	16
	부모감독	10.55	2.45	4	16
	부모간의 갈등	7.10	2.72	4	16
사회환경 변인	친구관계	14.71	2.97	5	20
	교사와의 관계	10.49	3.72	5	20
	학교생활적응	12.51	2.97	5	20
인터넷 중독성향 정도		7.31	6.15	0	25

2. 인터넷 중독성향 실태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성향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인터넷 중독성향 평균점수는 7.31점(sd=6.15)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66.4%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정상(0-9점) 상태로 나타났고, 18.0%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 상태는 아니지만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계상태(10-13점)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1명 정도인 10.5%는 중독의심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며, 5.1%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 상태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15.6%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인터넷 중독성향 수준

구분	전체(N=550)	남학생(N=275)	여학생(N=275)
0-9(정상)	66.4(365)	59.3(163)	73.5(202)
10-13(경계)	18.0(99)	19.6(54)	16.4(45)
14-19(중독의심)	10.5(58)	14.5(40)	6.5(18)
20-25(중독)	5.1(28)	6.6(18)	3.6(10)
평균 점수(표준편차)	7.31(6.15)		

$\chi^2=15.62$, $df=3$, $p<.001$

한편,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 수준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인터넷 중독성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5.62$, $p<.001$). 즉, 남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 정도(21.1%)가 인터넷 중독의심과 중독인 상태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조사대상 10명 중 1명 정도(10.1%)가 인터넷 중독의심과 중독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중독의심과 중독 상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남학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별 독립변수 차이검증

인터넷 중독성향 개별집단에 따라 개인특성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별 개인특성 변인과의 차이검증

개인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아존중감	정상집단(a)	365	13.51	2.94	10.17***	a>b a>c a>d
	경계집단(b)	99	12.49	2.80		
	중독의심집단(c)	58	11.76	3.12		
	중독집단(d)	28	11.61	3.07		
우울	정상집단(a)	365	10.20	3.26	9.34***	c>a d>a d>b
	경계집단(b)	99	10.64	3.19		
	중독의심집단(c)	58	11.72	2.72		
	중독집단(d)	28	12.96	3.42		
충동성	정상집단(a)	365	11.62	2.87	3.71*	c>a d>a
	경계집단(b)	99	12.18	3.15		
	중독의심집단(c)	58	12.89	3.48		
	중독집단(d)	28	12.50	3.43		

*p<.05, ** p<0.1, *** p<.001

자아존중감의 경우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10.17,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별에 따라 사후비교분석(Scheffe) 결과, 정상집단과 다른 모든 집단과의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 수준의 경우에도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9.34,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아졌다. 집단별에

따른 사후비교분석 결과, 중독의심집단과 정상집단, 중독집단과 정상집단 및 경계집단과의 우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동성 수준의 경우에도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3.71, p<.05$),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충동성 수준도 높아졌다. 집단별 사후비교분석 결과, 중독의심집단과 정상집단, 중독집단과 정상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에 따라 가족환경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별 가족환경 변인과의 차이검증

가족환경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상집단(a)	365	11.76	2.39	11.41***	a>c
	경계집단(b)	99	11.33	2.21		a>d
	중독의심집단(c)	58	10.22	2.68		b>c
	중독집단(d)	28	9.86	2.09		b>d
부모의 지도감독	정상집단(a)	365	10.76	2.44	6.27***	a>c
	경계집단(b)	99	10.70	2.38		a>d
	중독의심집단(c)	58	9.60	2.44		
	중독집단(d)	28	9.36	2.16		
부모간의 갈등	정상집단(a)	365	6.81	2.55	7.83***	c>a
	경계집단(b)	99	7.12	2.83		d>a
	중독의심집단(c)	58	8.07	3.09		d>b
	중독집단(d)	28	8.82	2.79		

*** $p<.001$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11.41,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에 따른 사후비교분석 결과, 정상집단과 중독의심집단과 중독집단, 경계집단과 중독의심집단과 중독집단간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의 경우에도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6.27,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후비교분석 결과, 정상집단과 중독의심집단, 정상집단과 중독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중독의심집단과 중독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부모의 지도감독이 정상집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간의 갈등수준의 경우에도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7.83,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간의 갈등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후비교분석 결과, 중독의심집단과 정상집단, 중독집단과 정상집단 및 경계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에 따라 사회환경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친구관계의 경우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12.36, p<.0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사후비교분석 결과, 정상집단과 중독의심집단 및 중독집단, 경계집단과 중독의심집단 간에 친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는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터넷 중독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학교생활의 흥미의 경우에는 집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11.07, p<.01$),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흥미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사후비교분석 결과, 정상집단과 중독의심집단, 정상집단과 중독집단, 경계집단과 중독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별 사회환경 변인간의 차이검증

사회환경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친구관계	정상집단(a)	365	15.12	2.78	12.36***	a>c a>d b>c
	경계집단(b)	99	14.68	2.99		
	중독의심집단(c)	58	12.98	2.79		
	중독집단(d)	28	13.11	3.85		
교사와의 관계	정상집단(a)	365	10.56	3.75	.58	
	경계집단(b)	99	10.45	3.55		
	중독의심집단(c)	58	10.55	3.63		
	중독집단(d)	28	9.61	4.11		
학교생활 흥미	정상집단(a)	365	12.87	2.92	11.07***	a>c a>d b>d
	경계집단(b)	99	12.50	2.70		
	중독의심집단(c)	58	11.33	2.81		
	중독집단(d)	28	10.21	3.26		

*** $p<.001$

4. 인터넷 중독성향의 예측 요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다회

귀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어떤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다수의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N=55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											
②	-.231**	-										
③	.233**	-.300**	-									
④	.187**	.074	.189**	-								
⑤	-.259**	.341**	-.303**	-.120**	-							
⑥	-.197**	.239**	-.133**	-.079	.487**	-						
⑦	.187**	-.221**	.328**	.205**	-.437**	-.147**	-					
⑧	-.214**	.380**	-.236**	.074	.296**	.311**	-.049	-				
⑨	-.108*	.135**	-.170**	-.159**	.160**	.201**	.030	.128**	-			
⑩	-.224**	.221**	-.339**	-.187**	.203**	.196**	-.151**	.139**	.435**	-		
⑪	.352**	-.086*	.122**	.107*	-.058	-.082	-.020	-.015	-.169**	-.203**	-	
⑫	.276**	-.068	.135**	.141**	-.044	-.130**	.025	-.010	-.092*	-.167**	.225**	-

주 : *p<.05 **p<.01

- ① 인터넷 중독성향 ② 자아존중감 ③ 우울 ④ 충동성 ⑤ 부모와의 의사소통
- ⑥ 부모 지도감독 ⑦ 부모의 갈등정도 ⑧ 친구관계 ⑨ 교사관계 ⑩ 학교생활흥미
- ⑪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⑫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특히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고려한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흥미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의 흥미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울, 충동성, 부모의 갈등정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 예측요인 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지만, 어떤 변수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고, 이들 예측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으로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 예측모델을 산출해 보았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할 변인들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와 분산

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려한 독립변수들이 공차와 분산팽창계수가 1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들이 회귀분석의 가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잔차도표와 독립변수들의 편회귀잔차도표의 유형을 점검하였다. 이들 도표의 유형들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및 상호독립성을 만족시켜 주었다.³¹⁾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이라는 종속변수를 가지고 고려한 요인들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50)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β	β	β	β
통제 변인	성별 ^a	.188***	.201***	.188***	.166***
	학년 ^b	.084	.070	.063	.062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295***	.264***	.269***	.266***
		.206***	.169***	.170***	.168***
개인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191***	-.142**	-.107*
	우울		.113**	.070	.037
	충동성		.123**	.095*	.100*
가정 환경 변인	의사 소통			-.097*	-.087
	지도 감독			-.036	-.061
	부모 갈등			.079	.084
사회 환경 변인	친구 관계				-.103*
	교사 관계				.038
	학교 생활				-.082
상수		-.470	1.184	2.933	6.433
R ²		.185	.260	.282	.295
adjusted R ² square		.179	.250	.268	.277
F		30.081***	26.532***	20.635***	16.785***

* p<.05, ** p<.01, *** p<.001

a 가변인(Dummy variable)화하였음. 남자=1, 여자=0, b 1학년=1, 2학년=0.

31) 성태제,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2007), 266.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성별, 학년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18.5% 설명해 주었다($R^2=.185$, $F=30.081$, $p<.001$). 특히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남학생($\beta=.188$)이 여학생에 비해서,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beta=.295$), 그리고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beta=.206$)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특성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6.0% 설명해 주었다($R^2=.260$, $F=26.532$, $p<.001$). 개인 특성 변인들은 1단계에 비해 7.5%의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beta=.201$),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64$), 그리고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69$) 등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변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beta=-.191$), 우울($\beta=.113$) 그리고 충동성($\beta=.123$) 등 고려한 모든 변인들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과 개인특성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8.2% 설명해 주었다($R^2=.282$, $F=20.635$, $p<.001$). 가족환경 변인들은 2단계에 비해 2.2%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가족환경 변인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을 의미하지만,

개인특성 변인에 비해서는 영향력의 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beta=.188$),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69$),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70$) 등의 통제변인과 자아존중감($\beta=-.142$), 충동성($\beta=.095$) 등의 개인특성 변인들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가 원활하지 않을수록($\beta=-.09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개인특성변인, 가정환경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환경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9.5% 설명해 주었다($R^2=.295$, $F=16.785$, $p<.001$). 사회환경 변인들은 3단계에 비해 1.3%의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한 변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166$),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66$),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68$), 자아존중감($\beta=-.107$), 충동성($\beta=.100$)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환경 변인 중에서는 친구관계($\beta=-.103$) 변인만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인들을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충동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변인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의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요인 중에서는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66$), 1회 평균 인터넷사용시간($\beta=.168$), 성별($\beta=.166$) 등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11.2% 설명해 주었다($R^2=.112$, $F=11.132$, $p<.001$).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beta=.225$), 그리고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beta=.200$)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통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특성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0.6% 설명해 주었다($R^2=.206$, $F=11.372$, $p<.001$).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199$)와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43$) 등의 통제변인과 자아존중감($\beta=-.263$)과 충동성($\beta=.122$) 등의 개인특성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통제변인과 개인특성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4.4% 설명해 주었다($R^2=.244$, $F=9.302$, $p<.001$).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01$),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30$) 등의 통제변인과 자아존중감($\beta=-.174$) 등의 개인특성 변인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정도($\beta=-.142$)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9〉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75)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β	β	β	β
통제 변인	학년 ^a	.044	.015	.012	.001
	인터넷 횟수	.225***	.199***	.201***	.203***
	평균 사용시간	.200**	.143*	.130*	.133*
개인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263***	-.174**	-.138*
	우울		.081	.032	.004
	중독성		.122*	.096	.109*
가족 환경 변인	의사 소통			-.142*	-.116*
	지도 감독			-.085	-.062
	부모 갈등			.064	.089
사회 환경 변인	친구 관계				-.139*
	교사 관계				.020
	학교 생활				-.027
상수		2.847	6.237	11.000	12.801
R ²		.112	.206	.244	.257
adjusted R ² square		.102	.188	.217	.222
F		11.132***	11.372***	9.302***	7.403***

* $p<.05$, ** $p<.01$, *** $p<.001$

a 가변인(Dummy variable)화하였음. 남자=1, 여자=0, b 1학년=1, 2학년=0.

4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개인특성변인, 가족환경변인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5.7% 설명해 주었다($R^2=.257$, $F=7.403$, $p<.001$).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203$),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133$), 자아존중감($\beta=-.138$), 충동성($\beta=.109$), 부모와의 의사소통($\beta=-.116$)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변인에서는 친구관계($\beta=-.139$)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못할수록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26.3% 설명해 주었다($R^2=.263$, $F=31.244$, $p<.001$).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beta=.373$),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beta=.219$)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통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특성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33.2% 설명해 주었다($R^2=.332$, $F=21.482$, $p<.001$).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323$)와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206$) 등과 학년($\beta=.105$)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beta=-.112$), 우울($\beta=.152$), 충동성($\beta=.135$) 등의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과 개인특성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34.7% 설명해 주었다($R^2=.347$, $F=15.135$, $p<.001$).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328$),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221$), 학년(β

=.104) 등의 통제변인과 우울($\beta=.117$)과 충동성($\beta=.104$) 등의 개인특성 변인들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에서는 부모간의 갈등수준($\beta=.132$)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75)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β	β	β	β
통제 변인	학년 ^a	.099	.105*	.104*	.130*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373***	.323***	.328***	.323***
		.219***	.206***	.221***	.218***
개인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우울		-.112*	-.093	-.072
	충동성		.152*	.117*	.087
가정 환경 변인	의사 소통				
	지도 감독			-.049	-.060
	부모 갈등			.019	.039
사회 환경 변인	친구 관계				-.056
	교사 관계				.098
	학교 생활				-.167**
상수		-1.652	-4.466	-4.548	-5.075
R ²		.263	.332	.347	.371
adjusted R ² square		.255	.317	.324	.341
F		31.244***	21.482***	15.135***	12.440***

* p<.05, ** p<.01, *** p<.001

a 가변인(Dummy variable)화하였음. 남자=1, 여자=0, b 1학년=1, 2학년=0.

4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개인특성변인, 가족환경변인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환경 변인을 추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37.1% 설명해 주었다($R^2=.371$, $F=12.440$, $p<.001$).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beta=.323$),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beta=.218$), 학년($\beta=.130$), 부모간의 갈등정도($\beta=.119$)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변인에서는 학교생활흥미($\beta=-.167$)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1학년일수록, 부모간의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흥미가 적을수록 여자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생태 체계적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성향 평균점수는 7.31점(sd=6.15)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10.5%는 중독의심이며, 5.1%는 중독 상태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15.6%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인터넷 중독성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심과 중독 상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성향 집단에 따라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인에서 보면 중독의심 및 중독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반면, 우울과 충동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에서는 중독의심 및 중독집단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부모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부모간의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변인에서는 중독의심 및 중독집단일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흥미 등은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울, 충동성, 부모의 갈등정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충동성, 친구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와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년,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 1회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부모간의 갈등, 학교생활 흥미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개입전략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의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때, 중독의심과 중독 상태에 있는

학생들과 경계와 정상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측하는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성향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남학생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되, 인터넷 중독성향 문제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치료 개입에서는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당 인터넷 사용횟수와 1회 평균 사용시간 등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측하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터넷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음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횟수와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는 청소년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수칙과 이용윤리의 교육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부모교육의 실시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간의 갈등, 친구관계와 학교생활흥미 등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개인특성, 가정환경, 사회환경 요인 등 생태체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성향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성향이 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게임이나 휴대폰 및 음란물 중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집단에 속한 표본의 한계로 인해 중독집단만을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중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교회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의 대상별 비교연구를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싶다. 끝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추이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별에 따른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중독성향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성태제.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2007.
- 조성남 외 2인.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서울: 집문당, 200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 정기간행물

- 강만철, 오익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I). 『교육심리연구』, 15권 4호 (2001): 5-21.
- _____.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II). 『교육심리연구』, 16권 4호 (2002): 247-74.
- 김교정, 서상현.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권 1호 (2006): 149-79.
- 김진희, 김경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권 1호 (2004): 137-66.
- 김혜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권 (2001): 91-117.
- 류은정 외 3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권 1호 (2004): 102-10.
- 손병덕.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5): 207-28.
- 오원옥.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권 1호 (2007): 81-9.

이수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권 2호 (2008): 175-92.

이수진 외 2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관련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2005): 1179-97.

이승대, 김선미. “고등학교의 인터넷 이용 및 중독실태에 따른 지도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47권 1호 (2008): 77-101.

이정은, 조미형.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권 3호 (2007): 79-102.

임진숙 외 2인.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8권 제2호 (2005): 75-83.

전경규 외 2인.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6권 제1호 (2001): 59-76.

정소희.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권 (2007 겨울): 5-34.

조학래. “여자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제34집 (2004 가을): 299-328.

_____. “고등학교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4권 (2006): 51-75.

조춘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2호 (2006): 1-29.

한미영, 이형실.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권 4호 (2006): 55-65.

홍세희 외 2인. “인터넷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권 1호 (2007): 129-43.

Brooks-Gunn, J. & Peterson, A. “Studying the Emergence of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 20 (1991): 115-9.

Davies, P. T., & Cummings, E. M.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6, no. 3 (1994): 387-411.

Joiner, T. E., Jr., & Metalsky, G. I.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2 (1993): 114-35.

3. 미간행물

김희수.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오승환.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